WTO, 한국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논의

무역 상의 기술장벽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(WTO/TBT) 위원회가 11월 3-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려 EU(유럽연합)의 REACH(Registration, Evaluation & Authorization of Chemicals)와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억제계획 등을 논의했다.

11월4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관계자에 따르면, 총 47건의 의제가 논의됐으며 한국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%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할 예정인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회원국에 설명했다.

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는 자동차 수출국인 미국과 EU가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환경보호를 위한 EU의 강력한 화학물질 규제 수단과 미국의 리튬전지 관련규제, 캐나다의 담배 규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.

WTO/TBT 위원회는 각종 기술 규범과 표준,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도 시행에 앞서 회원국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절차로서 1년에 3차례 개최된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–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11/05>